아시아문화전당에 가면 색다른 향기를 만난다

라이브러리파크·국제회의실·북라운지 향기 마케팅 접목
유칼립투스·백단향·초록풀 향 등으로 디자인
문화적 감성 일깨우고 피로 풀어주기 안성맞춤

그곳에 들어서면 유칼립투스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슬처럼 촉촉한 은방울꽃의 조화가 이채롭다. 유칼립투스는 머리를 맑게 하고 피로를 씻어준다. 상록 교목이라 상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북 라운지에 들어서면 숲속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 신선한 향기와 아울러 그윽한 우드 향이 코끝을 물들인다. 자연과 문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향기는 잠들어 있던 문화적 감성을 깨우기에 충분하다.

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ACC)이 일부 공간에 향을 입혀 방문객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문화전당은 인테리어 이미지 완성도를 높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라이브러리파크, 국제회의실, 북라운지에 향기 마케팅을 접목했다.

이번 향기 인테리어는 3개월 전에 조향 전문가의 공간 컨설팅을 매개로 스토리텔링 개발과 직원 의견 수렴을 거쳤다. 아울러 향에 대한 방문객들의 선호도와 반응을 조사했다.

먼저 북라운지는 책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상쾌함과 생명력을 주는 유칼립투스 향으로 디자인했다. 20~50대의 폭넓은 이용과 다양한 아시아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집중과 휴식을 돕는 향취에 초점을 맞췄다. 북라운지에서 잠시 눈을 감으면 울창한 숲속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든다.

라이브러리파크 로비는 만남의 장소다. 문화공간과 전시공간의 감성적 교감이 이뤄지는 문화 교류의 장이다. 이곳에서는 비록 실내지만 바깥 하늘 공원의 싱싱한 풀내음을 느낄 수 있는 향이 배어나온다. 시원하고 경쾌한 향취는 방문객에게 긍정적이면서도 편안한 마음을 준다.

특히 로비는 휴게 및 전시, 판매 등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생각의 공유, 소통을 돕는 향취에 역점을 뒀다. 초록 풀 향기와 고급스러운 꽃 향기의 조합은 달콤함을 주는 동시에 피로를 풀어주기에 안성맞춤이다.

아시아 속 한국의 전통미를 느끼고 싶다면 국제회의실 리셉션홀을 방문하면 된다. 이곳은 아시아문화예술과 지식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무엇보다 안정감과 긍정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리셉션홀에서는 백단향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예로부터 백단향은 기품과 여유, 신뢰감을 선사하는 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레몬그라스와 클라리 세이지의 향이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준다.

이처럼 각 공간은 특성에 맞는 향취를 발하도록 향기를 매개로 기획했다. 디자인

아시아문화전당 북라운지.

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못지 않게 안정성에도 신경을 썼다. 문화전당은 다중이용시설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고시한 향 알러지 유발물질(26종)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취득한 향 성분으로만 엄선했다.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는 "향기 인테리어는 국립기관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ACC를 찾는 관람객들이 각 공간의 향기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게끔 배려를 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미디어 월', 철거가 최선일까?

별이 유난히 반짝이던 지난해 가을밤, '뷰폴리'(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를 찾은 전국의 여행마니아들은 광주의 아름다운 야경에 탄성을 터뜨렸다.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지붕에 설치된 70여 개의 채광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불빛에 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어두컴컴한 도심을 환하게 밝혀준 문화전당의 '미디어 월'(Media Wall·75x16m)은 한폭의 움직이는 캔버스였다. 국내외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에서 부터 다양한 이벤트 현장을 담은 영상들이 고해상 스크린을 뚫고 밤 하늘을 수놓았다.

이날 이들을 뷰폴리로 불러 모은 건 한국관광공사의 '예술광주-유랑, 뷰폴리에서 영화를 보다'였다.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3차광주폴리의 하나인 뷰폴리와 영화를 엮어 '광주다운' 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였다. 아니나 다를까. 주최측의 기획대로 참가자들은 뷰폴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영화 '어바웃 타임'을 관람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탁 트인 옥상에서 문화전당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 보며 영화를 감상하는 건 어디서도 접하기 힘든 색다른 기회였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머지 않아 이 모든 추억이 추억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미디어 월'이 오는 2021년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옛 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최근 5·18민주화 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문화전당 내부 광장에 설치된 '미디어월'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월은 5·18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건축물이고 옛 전남도청이 복원된 뒤에도 계속 '미디어 월'이 세워져 있으면 일부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역문화계에선 미디어 월의 철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문화전당의 상징물인 만큼 무작정 철거하는 것 보다는 존치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어 월은 고음질의 다채널 음향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최초의 멀티미디어 플랫폼이다. 문화전당의 공연과 전시콘텐츠를 시민에게 알리는 채널이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광주의 면모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 월은 문화전당의 건물이 모두 지하에 들어 앉은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광주 도심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영상과 이미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화전당의 '존재'를 각인시켜온 일등공신이었다.

이처럼 미디어 월은 단순한 옥외 전광판이 아니다. 만약 미디어 월이 철거된다면 문화전당을 상징하는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데다 이를 활용했던 미디어아트 공간도 사라지게 된다. 활용 여부에 따라 광주의 미디어아트 발전을 이끌 문화자산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철거후 재설치 또는 철거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옛 도청 복원에 걸리적 거린다는 이유로 철거를 밀어붙이는 게 최선은 아닐 터이다. 문화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시간'과 '기억'의 단상 정갈한 시어로 형상화

군산 출신 조선의 '돌이라는 새'

"하늘이 잘 보이도록 머리를 내밀었다/ 몸속에 감춘 길은 한낮 궤적일 뿐/ 스스로 고립될 때까지 수많은 기착지를 떠나와야 했다/ 밤에 어울리는 어둠은 새 떼의 수온으로 스며들고/ 발길질에 걷어차인 돌에 날개가 돋아났다/ 목구멍 깊이 멈춘 숨소리들은/ 서슬 푸른 뼛속까지 잠을 가둔 채/ 수천 년을 밤으로 귀결시켰다…"('돌이라는 새' 중에서)

군산 출신 조선의 시인이 시산맥 제22차 감성기획시선공모당선 시집으로 '돌이라는 새'를 펴냈다.

김만중문학상과 신석정촛불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시인은 이번 신작 시집에서 '시간'과 '기억'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집에는 '먼지의 건축학', '환한 불통', '리셋 증후군', '소리의 블랙홀', '눈꽃의 시간', '과민성 슬픔', '표본 나비' 등 모두 5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특히 '순간을미분하다' 작품에는 "멀어진 것들", "익숙한 것부터 낡아지기 시작할 때", "숨겨도 드러나는 것들" 등의 표현처럼 불쑥불쑥 떠오르는 시간에 대한 단상이 정갈한 시어로 형상화돼 있다.

권온 문학평론가는 추천의 글에서 "그의 시를 읽는 일은 신선하고 낯선 경험이자 한국시의 숨은 보석을 만나는 행운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며 "우리네 삶은 대개 어떤 제한에서 자유롭기 힘든 물음표 같은 속성을 갖는다. 조선의 시인은 이를 뛰어넘어 자유를 향해 열려있는 느낌표로서의 삶을 꿈꾼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생애전환 문화예술 워크숍 인생라운드#' 개최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센터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창의예술교육연구소'의 세부프로그램인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인생라운드#''을 개최한다.

6월 한 달간(5일, 11일, 18일,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 기획자와 강사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특강워크숍, 교육콘텐츠 개발과 설계를 위한 방법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생애전환' 프로그램은 광주형 문화예술교육의 특화된 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5일에는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대표가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워크숍의 문을 연다.

11일 두번째 차시는 양재혁(컬쳐커뮤니티 동네), 김혜일(문화공동체 아우름) 대표의 특강과 함께 '동네형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18일 세 번째 차시는 청년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도빈(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홍동우(공장공장) 두 대표의 '너 요즘 어때?'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마지막 차시 25일에는 '눈이 부시게'라는 주제로 고영직 문학평론가와 정민룡 관장(북구문화의집)이 진행하며 은퇴 이후 신중년 세대의 전환기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해당 링크접속(https://forms.gle/AFMDcfSyPwaFxE9A9)을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5763/576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BK21플러스사업단, 24일 학술대회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과 BK21플러스사업단(단장 신해진)이 주최하는 전국학술대회가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 인문대 1호관 1층 김남주홀에서 열린다. 먼저 신해진 단장의 개회사와 류재한 전남대 인문대학장 축사로 발표회 문을 열고 3개의 기획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정우락(경북대) 연구자가 '구곡원림의 양상과 경북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를 발표하고 김신중 전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발표는 권은(한국교통대) 연구자가 '채만식과 경성 모더니즘-모더니스트로서의 채만식'을 발표하며 장일구 전남대 교수가 토론을 한다. 세 번째 발표는 이래호(강원대) 연구자가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남녀 언어차'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진병 전북대 교수가 토론을 한다. 문의 062-530-31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